

“나무는 정직하죠... 그래서 제2의 승부 걸었어요”

많은 이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많은 이들이 수많은 이유로 계획을 포기하고 만다. 한 해를 보내면서 금연에서부터 취업, 결혼, 진직 등 연초에 결심했던 계획들을 작성하고 실천으로 옮긴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작심 365

<1> ‘화이트칼라서 목수로’ 박상일씨

“강요된 삶 싫다” 회사 그만둬
가구장인 찾아 1년 동안 준비
“철학 담긴 가구 만들고 싶어”

목수 박상일(38)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증권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했다. 월급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새해와 함께 3년간 일했던 회사에 돌연 사표를 던졌다. 아내(33)와 두 아들을 둔 가정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거래처와의 갑을 관계,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회사 생활이 너무 불편했다. 고민도 많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정직한 일을 해보자’며 직장을 뛰쳐나왔다.
회사를 그만두고 몇 개월은 막막하기도 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이상이 ‘생활’이라는 현실에 부딪혀서다.
큰아들 남우의 태명을 ‘나무’로 지을 만큼 평소 나무라는 존재 자체를 동경했던 박씨는 작심하고 ‘목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연의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았고, 평소 좋아했던 나무를 만져보고 싶었어요.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당장 담양의 가구 장인을 찾아가 일을 했죠. 가구를 배우면서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제법 나무 냄새가 좋았다. 나무를 만지면 편안해지고, 가구 하나를 완성하면 성취감이 들었다. 어느 정도 가구에 대해 알아갈 무렵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옮겼다.

목수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가구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고, 진짜 내 가구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 9월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공간을 얻어 ‘올리브 퍼니처’라는 공방을 열었다. 올리브 나무는 약속과 축복을 상징한다.

“제가 직접 생각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저만의 철학을 담은 가구를 만들고 싶었어요. 자신의 삶을 강요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 행복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자부심만큼 좋은 가구를 만들어야죠.”



직장을 그만두고 노력 끝에 목수라는 꿈을 찾은 박상일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정직한 가구예요.”

그는 새로운 가구를 만들 때면 오랜 시간을 공들인다. 베개와 도마 하나를 만드는 데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만들기에 앞서 누가 쓰고, 어떻게 쓰면 좋은가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씨가 만들고 싶은 가구는 모양이나 결 등 나무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가구다. 백운동 공방의 인테리어 소품들은 그의 그런 철학을 보여준다. 가구에는 천연 본드와 천연 오일만을 사

용한다는 것도 그의 소신이다. 박씨는 이마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무 자체가 주는 자연스러운 맛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다.

스스로를 ‘변방의 목수’라고 부르는 박씨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다른 이들이 알아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며 “항상 겸손하지만 내 가구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지키는 그런 목수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대 등 로스쿨 학생들 검찰 실무시험 집단 거부

다음달 변호사시험도 파행 우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70여명 등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또 다음 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도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거부로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대 로스쿨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시부터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70~80여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전국적으로는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으며, 나머지 1015명은 결사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된 검사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회 관계자는 “법무부의 사시 유예 방침에 대해 강한 항의의 표시로 검찰실무 시험을 보이콧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전국 단위의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하면서 변호사시험 파행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도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이 합숙에 들어가 출제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거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시험 문제 마련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해남에 전남 첫 ‘평화의 소녀상’ 제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땅끝 해남에 건립됐다.

지난 12일 해남공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박철환 해남군수 등이 참석했다.

해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 비용은 해남군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남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마련했다. 전남지역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일본 그들이 지우려한다고 해도 역사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역사책을 바꾼다 해도 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진실이 묻히는 것도 아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셔도 평화비는 남아서 역사를 증언할 것이고 후대의 기억을 일깨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째인 지난 2011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29개가 건립됐다. /유현석기자chadol@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2 해질 17:21 달뜨기 09:30 달지기 20:14

겨울비 내려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8/11	보성	흐리고 비	5/10
목포	흐리고 비	8/12	순천	흐리고 비	7/11
여수	흐리고 비	8/10	영광	흐리고 비	7/10
나주	흐리고 비	7/11	진도	흐리고 비	8/13
완도	흐리고 비	8/13	전주	흐리고 비	7/10
구례	흐리고 비	6/10	군산	흐리고 비	7/10
강진	흐리고 비	6/11	남원	흐리고 비	6/9
해남	흐리고 비	7/12	홍산도	흐리고 비	9/13
장성	흐리고 비	7/9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	서~북서	0.5~1.5
	면바다	북동~동	0.5~1.5	서~북서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동)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0~2.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37	08:53
여수	16:19	21:31
	10:58	04:18
	23:02	17:03

◇ 생활지수

- 관심: 5천명
- 식중독
- 낮음
- 자외선
- 보통
- 체감온도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5(화)	☀	7/9
16(수)	☁	2/4
17(목)	☀	-1/5
18(금)	☀	-2/7
19(토)	☀	-1/7
20(일)	☀	0/8
21(월)	☀	3/7

동서화합천사프로젝트

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당신의 만원으로
영광이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신청 클릭

“엄마, 우리집에 언제 가요?”

유방암으로 몇번의 수술 끝에 요양중인 영광이의 할머니와 미혼모지만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광이의 엄마.

부족하지만 화목했던 영광이네는 갑작스런 화마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이는 지금, 추운 겨울을 임시 거처인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 사용된 사진은 박지민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촬영하였습니다.

[영광이의 집이 지어지면 사랑이 모여서 지어진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모아 영광이를 집으로!

1만원 기부천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후원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061-921-4397/061-274-0041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 농협 301-0081-6148-11